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일편단심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사 는 정 년 김 신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통일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실천훈련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지휘관, 병사들과 군중, 병종부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 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전군에 강철같은 굳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개선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라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에 농업과 수산, 화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성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었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쟁취한 우리의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과 번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까.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념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2 면 으 로 계 속)

신 김은사는 년 정은사

(1 면 에서 계속)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인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계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까.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제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 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게 단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천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과학전선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밟아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물질야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과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의 깊이를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껏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향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뗏뗏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돌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웅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의 길로 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승의 념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화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화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돌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춰놓은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부문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

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괴롭살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역적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의 장쾌한 해돋이

희망찬 새해다.
은 나라 인민들의 송년의 추억과 신년의 마음을 담고 평양의 대동강반에서 터져오른 화려한 축포와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수천수만 가정들의 행복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며 새해 2015년이 밝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행성의 곳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의 진침으로 피비린내나는 살륙과 학살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침체로 하여 지속되는 장기적인 실업과 불황은 새해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연이은 흑인살해사건 등 극심한 인권말살행위로 사회적불안정이 휩쓸고 많은 나라들에서 생활난에 쪼들려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투쟁이 도처에서 그칠새없는 것이 2015년에 들어선 행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감회깊은 추억과 아울러 래일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해를 맞이하였다. 행인들의 걸음새와 표정을 보아도, 집집의 창문안을 들여다보아도 비관과 어둠의 빛은 찾아볼수 없다.

무릇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고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한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파시한 2014년을 돌아보며 새해의 앞날을 본다.

참으로 감회깊다.
은 한해 건설의 대번영기로 수많은 창조물들,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과학중시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어디서나 최첨단들과의 열풍이 몰아쳤다. 국제체육무대에서 공화국이 거둔 쾌거와 체육강국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항기에 황금해의 배고동소리가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해에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남조선의 호전세력과 함께 온 한해동안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다. 한편으로는 제재와 봉쇄의 물거미를 더욱 조이고 유엔의 온갖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터무니없는 대조선 《인권결의》라는것까지 조작하는 등 저들의 대조선압살본심을 날날이 드러냈다.

그런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의 2014년이 창조와 변혁,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장식되게 된것은 행성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무엇이 조선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

시키며 세기의 대비약을 날게 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의 원대한 구상과 비범한 령도, 전체 인민의 무한한 애국충정과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그 원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셨다. 귀하의 선군령도는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에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는 불호령이었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승리의 기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싸움준비반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고 실탄사격을 비롯한 공격전술연습과 비행훈련, 항공특전병강화훈련, 포병화력타격훈련, 로켓트발사훈련, 잠수함기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들을 지도하시며 현대전에 맞는 자기식의 전법을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하시어 공화국을 겨냥한 적대호전세력의 전쟁연습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지난 4월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당시 남쪽상공에서는 미국과 남조

선의 사상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었다. 그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비행사대회를 한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전군의 비행사들이 다 평양에 모여 령공을 개방한 상태에서 행사를 한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위파리매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이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적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이렇게 조선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미국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걸음마다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정세영문가들도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전례없는 조치,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측했던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공격적이며 능숙한 전략을 지니었다》, 《조선반도의 운명은 북지도자의 주머니속에 들어가있는 셈이 되었다》고 하였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민족

의 자주권과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을 목격하면서 온 겨레는 민족생명의 위대한 수호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느끼었다.

무적의 군력에 인민의 안녕이 있고 행복이 있다.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 인민의 운명을 지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지니시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올리시었다.

지난해 정초 조선인민군 제534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물탱동시절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체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민아들이 부도없는 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며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될것인가를 품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었다.

이렇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령도의 자욱을 땀신 그이께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양말공장, 정성제약종합공장, 평양양명양방직공장, 평양에기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을 찾았 또 찾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령도와 불철주야의 로고에 의하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과 체육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애민현신에 대해 남조선언론들도 《끊임없는 애민행보》, 《주민들의 먹는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생활까지 늘 가까이에서 챙기는 지도자》, 《선대수령들과 똑같은 인민적지도자》로 칭송하면서 공화국이 가까운 장래에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온넋으로, 폐부로 느끼며 온 나라 인민이 그이의 뜻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 열의로 마음 불태운 한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렬로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통일의 결박성과 민족적사명감을 언명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에서 사람들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띠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특별사한, 정부성명 등의 자자구구에는 민족분렬과 대결의 기나긴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펼쳐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담대한 용단, 통일지략이 깃들어있다.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도 공화국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실력을 기울이신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 서거 3돠에 즈음하여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씨와 헌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신 그이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결한 의리와 덕망에서 사람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열렬한 민족애와 동포애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돠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또 조국해방 70돠이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겨레의 지향과 열망이 달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시고 밝은 미래이시다.

새해의 찬란한 해돋이와 더불어 그이의 거룩하신 모습이 어려온다. 더 큰 승리와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총하는 공화국의 2015년이 눈부신 해박속에 비껴간다. 뜨거운 민음과 사랑의 세계를 펼쳐 천만인민을 매혹시키고 온 세상을 통째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어 공화국은 2015년에도 더 높이고 더 빨리 비약할것이며 이 땅에는 새로운 변혁과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이여, 더 눈부신 영광을 맞이하라, 더 위대한 승리를 맞이하라,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라.

새해의 첫 기슭에서 이 나라 인민은 새로운 희망과 드높은 신심에 넘쳐 다시 출발선에 섰다.

겨레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함께 조선은 신심드높이 희망찬 새해 2015년의 대문을 힘껏 열었다.

본사기자 김강철

조선속도, 뜻깊은 이 해에는 ...

희망찬 2015년, 비약의 한길로 출발음쳐온 지난해에 이어 뜻깊은 새해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것인가.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동안 공화국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려왔다.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의 육아원과 체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업소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지난해 4월 조업을 앞둔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받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할수 있다.

지나온 공화국의 한해는 말그대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친 승리와 전변의 한해였다. 특히 건

설부면에서의 조선속도는 이 땅의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준 건설의 대번영기를 낳았다.

조선속도로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회한하게 개건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로동자합숙이 건설되었으며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7개월만에, 평양육아원, 체육원과 연풍과학자휴양소는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훌륭히 일떠섰다.

보통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수도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것이 시간마다 분마다 놀라운 전변과 변혁을 이룩하는 공화국의 조선속도이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이룬것을 한걸음에 비약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여기에 서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중앙동물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고있으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건

투장들마다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은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2015년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돠과 조국해방 70돠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이다.

새해에도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는데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많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당을 따라 만만시련을 헤쳐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들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답의 일념을 안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 이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켜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세계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해에 어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가를 목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래성

희망찬 새해 2015년이 밝아왔다.

동터오는 새해의 아침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로 달린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정히 들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올리는 각계층 인민들속에는 지난해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친 령기선수들과 녀자축구선수들, 탁구선수들, 레전드선수들을 비롯한 미더운 체육인들도 있다.

2015년의 대문을 열어제끼며 승리자의 희열에 넘쳐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들의 추억은 얼마나 가슴벅찬것인가.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남, 녀 령기선수들이 조국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안고 많은 메달을 쟁취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

제45차 세계기체제조선수권대회에서 리세광, 홍은정 선수들 남, 녀 조마운동에서 높은 수준의 난도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1위 쟁취!

2014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양영일선수 남자자유형레슬링 57kg급경기에서

1위 쟁취!
2014년 올림바파르그랜드 상유술경기대회, 청도그랜드 상유술경기대회 녀자 78kg급 경기에서 설경선수 각각 1위 쟁취!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에서 거둔 성과는 그 얼마나 자랑스러울것인가.

녀자축구선수들이 맞닥뿔들을 통쾌하게 타승하고

승리자의 희열에 넘쳐

1등의 단상에 오르고 김혁봉, 김정선선수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엄용철, 김은국선수들 령기종목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기록, 올림픽종합기록을 연이어 갱신!

실로 세계적인 강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체육기술발전전모는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새해 2015년에도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종목별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 진출하

게 된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돠과 조국해방 70돠을 경축하게 될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선수들과 감독들의 가슴가슴은 더 많은 금메달성공과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목표는 높고 극복해야 할 난관은 많고도 신심은 확고하고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모든 체육인들이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 사상적각오를 안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마음속다짐을 굳게 하고 있다.

보다 큰 체육경기성공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관철해갈 맹세로 심장을 뚫이는 선수들과 감독들의 마음은 벌써 승리의 금메달을 안고 들어설 영광의 대축전장대에 가있다.

그때 미더운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우승의 기쁨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승리의 자랑스러운 보고를 또 다시 드리게 되리라.

본사기자 홍범식

《위인을 모시여 해외동포들의 밝은 운명도 있다》

◇ 《우리에게 조국이 없다면 무슨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고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긍지롭게 생각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김길성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가슴펴고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다. 이끌어 줄 올바른 령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에 운명을 망친 나라와 민족은 적지 않다. 우리 조국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력사에 전례없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처럼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슬걸로 뜨겁게 이어지고 인민들이 령도자를 심장으로 받드는 단합된 나라는 없다.》

총련공감산기금단 고문 홍영월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국에서는 강성부흥할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날에날마다 창조되고있다. 회세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가신다. 만세 만세 김정은조선 만세!》

재미조선인예술훈단 단장 리준두



삼천리강산이 차넘치는 겨레의 설설한 통일년월

피눈은 성조기를 들고 이 땅에 더러운 침략의 마수를 뻗힌 미국에 의해 하나의 강토가 두동강나고 민족이 분열된 때로부터 어언 70년이 되어온다.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낸 해방의 만세소리를 무거운 침략의 군화발로 짓밟고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선을 강점한 미국의 침략력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대로 분열력사이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수난을 강요당한 비극의 역사이다.

품도 겪고있으며 언제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을지 알수 없는 항시적인 위협속에 살고있다. 지난 70년간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이다. 세기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이 날로 더욱 격화되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겨레에게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갈 때에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어떻게 해서나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출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멈출수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이 되는 새해에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통일에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2015년은 해돋이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시작되는 세월의 분기점에서 우리를 뚝 떼고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그 장쾌한 경관은 한해에 불수 있는 제일 멋있는 장면의 하나이다.

통일 해돋이를 보며

실 뜻아오르는 조선반도에서 사람들은 아바트창가와 드넓은 강변, 높은 산, 바다가 등지에서 저마다 해돋이를 부감하며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있다. 그 가지각색의 소원들중에서도 공통적이 가장 큰 이해의 소원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조선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품게 될 소원, 꿈에도 소원인 통일일것이다. 분렬의 또 한해를 보내고 맞이한 민족분렬 70년.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해 한두해도 아닌 무려 70년간을 분렬의 고통속에 살아왔다. 이 70년이 과연 적은 세월인가. 인간의 용근 한생과도 거의 맞먹는 장구한 세월이다. 일제강점 40여년간의

군 두배에 달하는 분렬의 비극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렬된 민족으로 남아있다. 민족분렬의 나날이 아직 적어서인가.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 서로 갈라져 살다나니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서인가. 아니다. 우리 조선민족처럼 민족애가 강한 단일민족도 드물고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지향과 희망은 백두산과 한나산에 솟아오르던 그 화산처럼 뜨겁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의 방해책동때문이다. 그에 아무굴종하는 민족안의 대결세력의

숨겨진 행위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분렬을 지속시킬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홀로 갈라지면 망한다. 통일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우리 민족의 힘과 노력뿐이다. 하나로 합쳐진 민족의 힘, 노력은 분렬세력을 압도하고 통일의 대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야 한다. 민족애, 통일의지로 달진 마음을 열고 우리 민족끼리의 더 큰 통일세상으로 누구나 용악 뛰어넘어야 한다. 하여 후대들에게는 전세대들, 우리 세대가 당하는 분렬의 고통과 아픔, 재난을 물려주지 말자. 하루빨리 통일삼천리에서 모두가 감격과 기쁨의 춤을 출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본사기자 리경순

생리별을 당한채 생사조차 알수 없는 부모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과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속에 해방의 기쁨안고 태어난 세대들의 머리우에는 어느새 흰서리가 수북이 내리었다. 잠시일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렬이 장구하게 지속되는 기간 우리 민족은 전쟁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었고 불신과 대결의 오랜 아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세계제패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 강점한 미국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으며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조선민족의 피가 뛰는 사람이란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면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자주통일의 열풍을 일으킨 6.15통일시대가 또한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분렬의 얼음장판에서 수십 년동안 막혀있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 열리는 속에 평화와 금강산, 인천과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겨레가 웨치는 통일합성이 삼천리를 진감했다. 당국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사이의 레와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체육무대에서는 북과 남의 선수들이

를 조국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안아오는 전환의 해로 빛내일 겨레의 불같은 의지로 삼천리가 끓어번지고있다. 온 겨레는 이해가 또다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일의 의성을 더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노다쳐 일떠서야 한다. 민족이 한사람같이 통일에국투쟁에 떨쳐나설 때 이 땅에는 반드시 민족의 숙망인 통일의 려명이 밝아올것이며 우리 민족은 하나의 강토에서 혁명을 잇고 살게 될것이다. 새해의 이 아침 겨레는 누구나 마음속깊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르고 부른다. 아, 통일! 본사기자 김응철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의 한해를 세월의 갈피에 아득하게 새겨놓고 겨레는 주제 104(2015)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새해를 맞이한 온 겨레는 장구한 기간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그토록 세대와 세대를 넘어 피땀같이 갈구해온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예라게 바라고있다. 주제104(201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아래 짓밟혀 수난자의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한 그 치욕의 최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우리 국토와 겨레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 7번이나 흘러갔지만 그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하지 않은것은 이 땅을 가로지른 원한의 분계선이며 우리 민족이 가슴에 묻고사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다.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생리

에게 아프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 분렬된 조국이었다. 그래서 북과 남의 겨레는 노래를 불러도 통일소원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통일 통일 언젠가 오리라 통일》, 《갈라진 아픔을 못참아》, 《누구나 바라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고 목메여 웨쳐오지 않았던가. 이제 더는 분렬을 유산처럼 후세들에게 물려줄수 없고 70년 세월의 겨레가 흘린 그 눈물로 새해의 날과 달들을 계속 적실수 없다.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

아, 통일! 본사기자 리경철

아, 통일!

밝아온 새해의 이 아침에 님에게는 혈육들생각이 더욱 간절하고 통일년원이 강렬해진다. 지난 2014년은 나에게 지울수 없는 추억을 새겨주었다. 지난해의 3월에 금강산에서 그처럼 보고싶고 만나고 싶었던 남편의 두 동생과 조카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던것이다. 정말이지 곁같이 왔다갔다 곁같이 간 상봉이었다. 내가 고향 충청남도 론산군을 떠났것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이었다. 당시 17살이었던 나는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일념을 안고 용약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지금도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난날 동구밖에서 바라나와 나를 바래워주던 부

너들까지 거느린 할아버지가 되었다. 자식들도 이제는 다 성장하여 중앙기관의 어엿한 일군으로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하고있다. 참으로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는 궁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삶이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과연 이런 존엄로운 삶에 대해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하기에 금강산에서 만났던 두 동생과 조카들도 나의 지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나는 그때 동생들과 조카들에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을 믿

고 따르는 길에 통일의 길도 민족번영의 길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지금도 내 품에 와락 안기던 두 동생과 조카들의 모습이 간밤에도 떠오르고 나의 두손을 잡고 울먹이며 꼭 다시 만나자던 그들의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듯하다. 상봉의 기쁨이 클수록 리별의 아픔도 큰 법이다. 상봉장에서 헤어지기 아쉬워 하였던이 눈물을 흘리는 동생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령가족만이 아닌 온 겨레가 겪는 아픔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그럴수록 이런 령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

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돌이 자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해이다. 외세가 그어놓은 원한의 분계선때문에 백년가약을 맺었던 부부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만나지 못하고 한부모의 괴로움만러받은 형제들이 북과 남,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모르고 지내야 하는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을 우리 세대는 뼈아프게 겪었다. 이제 더 이상 민족분렬의 비극과 그로 인한 고통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새날이 오듯이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된 강토에서 통일민족을 높이 부를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리형우

○ 새해에 부치는 각계의 소원 ○

◎ 《지금 나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행복의 돛배 마냥 등실 뜻아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공화국의 교육자된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살고있다. 행복에 겨워 희망의 2015년을 맞이하게 되니 남녘땅에 있는 혈육들이 더욱 보고싶다. 그들과 오늘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온 겨레가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나도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잘하는것으로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위업수행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나가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교수 박사 김지환

◎ 《작년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저의 사진을 보며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였다. 전쟁시기의 용군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전후부터 이 공장에서 30여년간 일하였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수해물 입은 남녘의 동포들과 고향사람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였다. 고향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겨레모두에게 고운 천을 보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소원이 었고 나의 꿈이다. 그 꿈이 실현될 통일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 김성속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방정실

◎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겪은 분렬의 고통을 우리 10대, 20대의 세 세대들도 겪고있다. 분렬된 땅에서 태어나 부모들과 학교선생들로부터 민족분렬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들어온 나와 우리 세대의 가슴속소원이 통일인 하루빨리 이루어지는것이다.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이해에는 동족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고 통일의 밝은 지평이 열리기를 소원해본다. 그러자면 남쪽에서 전쟁연습하고 배라뿌리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원도 통천군 리철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새해가 밝았다. 조국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분열의 비극이 70번째 년료를 새기는 새해이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날이 흘렀지만 분열로 인해 빛어진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은 아직도 가시지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공화국은 여러 계기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책임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여 2월에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고 그 합의에 따라 여러차례에 북남사이에서 이루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시작을 좋게 때었던 북남관계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웅장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오늘의 북남관계는 남조선 전 《정권》시기와 다른없는 과거상태에 처해있다.

70년에 달하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다. 심장에 조선 민족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종교인이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통일이라는 민

족사적위업실현에서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북과 남이 복잡한 문제들이 실라레처럼 엉켜있는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리정표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마련되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마음과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지난 6.15통일시대에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 백두산과 금강산, 평양과 서울, 부산과 대구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활짝 열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로 향한 겨레의 흐름이 노도처럼 굽이친 장엄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전진한 6.15통일시대에 우리 겨레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길에서 극복 못할 난관이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전진할 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앞당겨질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야 한다.

외세는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오늘도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음모양모로 온갖 방책책동을 다 하고있다. 민족자주의식이 없이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북남관계개선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지난 70년 동안 보여준 진리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2월초 북과 남이 이루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때에 핵전략격기권대를 서해상공에 틀어막아 대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것도 외세이며 상봉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규모 최신전장비들과 칩락무력을 동원하여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것도 다름 아닌 외세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고 갖은 해방을 다 놓아주는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공조를 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긴장을 초래하는 군사적대발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될 때마다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고 배라살포소동이 벌어져 대화분위기가 날아난

것은 쓰라린 교훈으로 남아 있다.

북남사이의 신뢰는 결코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족의 진심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펼쳐진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모독하고 중상하는 언론 보도가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특히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배라살포행위들이 반복된다면 북남사이에는 대결과 불신의 굽만 깊어지기마련이다.

업동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리치이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것은 쓰라린 교훈으로 남아 있다.

북남사이의 신뢰는 결코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족의 진심을 믿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펼쳐진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모독하고 중상하는 언론 보도가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특히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배라살포행위들이 반복된다면 북남사이에는 대결과 불신의 굽만 깊어지기마련이다.

업동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리치이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또다시 밝아온 새해, 우리 겨레는 무슨 희망을 실으며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며 2015년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이다. 오로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속에 노래 《아리랑》의 선율이 은은히 울려 퍼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장장 70년을 외세에 의해 생리멸의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는 조선민족이다. 예타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헤쳐져 살아야만 하는 우리 겨레의 아픔인양 《아리랑》의 구절은 더욱더 예절히 파고 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청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아리랑》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이 노래는 오랜 세월이 걸쳐 각이한 시대와 사회제도,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졌다.

발생초기 《아리랑》은 남녀간의 련정관계를 반영한 소박하고 평범한 노래였으나 거기에는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당시 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2014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는 조선민요 《아리랑》을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

표》에 등록하였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이 함축 담겨있는 생명과도 같은 노래이다. 우리 선조들은 허허미미를 즐겼지만 《아리랑》을 부르며 버리고개를 넘었다.

우리 겨레는 노래부르기를 좋아하고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에 높은 긍지를 느낀다. 한 재미동포는 자기의 글에서 《아리랑》은 민요이기 전에 민족의 혼이고 자존심이다》라고 썼다.

《아리랑》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인가 하는것은 200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작곡가들로 구성된 《세계 아름다운 곡 선정대회》에서 《세계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뽑힌 사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에 넘치는 일인가. 2008년 당시 상임지휘자인 로린 마

젤이 이끄는 뉴욕필하모닉관현악단은 공화국의 동평양대극장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 뉴욕필하모닉관현악단은 바그너와 드보르자크의 명곡도 훌륭히 연주하였지만 공연의 마음을 조신한 《아리랑》으로 장식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든 노래이기에 오늘도 《아리랑》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며 즐겨부르는것이다.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없었던 가슴비찬 시대, 감격과 환희가 넘쳐흐르던 6.15통일시대에 《아리랑》은 삼천리강토우에 더 높이 울려 퍼졌다. 6.15시대는 수십년동안 막혔던 하늘길과 바다길, 땅길을 열어놓았고 해외의 각계층인민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온 세상에 파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한장면

동족대결정 책을 버려야 한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돐이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하여 장장 70년이나 분열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있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밝아온 이 한해에 자주통일 위업수행에서 전환적극면을 안아와야 한다.

지난해에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에서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이 완화되고 화해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내외의 이러한 기대와는 상반되게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변함없는 동족대결정책과 외세에 추종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여왔으며 이것은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민족분열이 장장 70년간의 년를 새기는 이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북남관계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극면을 안아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는 어긋나게 남조선보수당국이 계속 대결책동에 매여달린다면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2015년은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들어선지 3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2년간 이전 리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답습하여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온 남조선의 보수당국이다. 새해에도 지난해의 대결정책을 되풀이하게 되면 북남관계가 곡절과 파국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것은 분열 70년이 되는 올해를 통일의 전환적극면을 안아오는 해로 만들기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은 겨레가 바라는것은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고 북남관계개선이며 통일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바로 알고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민족분열의 력사가 70년이 되는 2015년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올것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다.

모처럼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아 두손을 마주잡고 《아리랑》의 노래를 부를수 있을가.

괴물도 하나, 언어도 하나, 력사도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지상의 과제이며 이를 떠나 하늘과 땅, 바다길이 열릴수 없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 줄수 없으며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전쟁의 구름을 걷어낼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대결의 긴긴 밤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자.

하루빨리 가슴아픈 리별을 끝장내고 통일아리랑의 아름다운 선율을 삼천리강토우에, 행성에 소리높이 울려가자.

이것이 새해 2015년에 실어 보는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다.

우린 《아리랑》이여라

본사기자 김준경



해내외의 온 겨레와 동거일체하여

◎ 심영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나눈 대담 ◎

기자: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뜻깊은 올해에 민족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지난 한해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데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데.

심영철: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또 조국해방 70돐이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사람의 용근 한생과도 맞먹는다고 할수 있는 70년,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자기의 존엄과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70년간이나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있는 이 비극적인 력사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단군민족의 후손들이라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 동족대결을 철저히 배격하고 겨레의 안녕과 평화번영을 위한 의로운 활동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지난해 북남관계가 최악의 기로에 놓여있었지만 우리 천도교인들은 단군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살리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특히 단군봉개건 20돐을 계기로 10여년만에 민족의 시조릉에서 진행된 개천절 북남공동행사는 이 땅우에 반드시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된 힘을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동성에 기초하여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공동선언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불신과 대결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조국통일의 새날은 밝아올것이라고 본다.

기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올해에도 할 사업이 많으리라고 본다.

심영철: 우리 천도교청우

당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만민이 복락을 누리는 《지상천국》, 《리화세계》건설을 지향하고있다. 우리당의 이러한 지향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된 삼천리강토에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가길 통일조국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안의 일꾼들과 공화국의 전체 천도교인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와 동거일체하여 올해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족적인 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이해에 남조선에 있는 여러 천도교단체들과의 접촉과 래왕, 협력사업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려고 한다.

하여 2015년을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는 뜻깊은 한해로 빛내이는데 기여할것이다.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해내외동포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제 104(2015)년 1월 1일